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46호 【루게 제 24559호】 주제 103 (2014)년 5월 26일 (월요일)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장정남동지, 변인선동지, 윤동현동지, 박정천동지, 홍영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장에 어려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게 빛내이기 위하여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새로 건설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적물과 자료들을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일떠선 대관유리공장이 당의 명도밑에 굴지의 광학유리생산기지로 전변된데 대한 해설을 주의깊게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관유리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뜻깊은 인연을 맺은 공장, 자신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정든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자주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을 안고 왔다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광학유리제품을 생산



을 집중하여 제품설계로부터 가공, 조립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무인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모르고 로동생활과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도록 합숙과 식당도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김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공장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을 보시였다.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찾아오시여 믿음을 주시고 떠나가시여서도 거듭되는 사랑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은덕을 생각하며 생산과제수행에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치였고 앞으로도 높은 생산증산으로 우리 당을 결

보장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지난 30여년간 높은 생산성으로 당을 받들어왔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혁명사적교양실을 잘 꾸려놓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을 잘하고있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로동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일터에서 일하고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는데 생산장성의 열쇠가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새로 생산하고있는 광학측정기재들의 성능을 료해하시였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광학기재들을 개발완성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우리 식의 첨단광학측정기재들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광학측정기재들을 동작시켜보시며 정말 훌륭하다고, 대관유리공장에서 만든 광학측정기재들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새로 꾸린 도금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4개의 흐름선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도금작업을 진행하는것을 주의깊게 보시며 로동자들을 유해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였다고, 유해로동이 신선놀음이 되였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도금생산공정을 자동화, 무인화함으로써 로력과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도금실수율과 생산량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금생산공정을 현대화한것처럼 전반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개조사업에 계속 역량

사용위해갈 공장로동계급의 총정의 마음을 시와 노래에 담아 펼쳐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 진실하고 선동적인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치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기술적으로 완성된 우리 식의 광학측정기재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높이 받들고 추체적이며 현대적인 새 제품개발과 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모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

주제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불세출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로 조국땅에 사회주의강성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조국과 더불어 총련도 새로운 전성기기로 비약해나가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우리들은 제일조선인총련합회 제23차 전체대회를 가지었습니다.

전체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과 탁월한 령도로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총정의 대회, 일심단결의 대회, 계승과 혁신의 대회로 장식하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열화같은 경도의 정으로 가슴 벅차 올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 반미전면대결전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토록 분방하신 속에서도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력사적인 축하문을 보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에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마음까지 합쳐 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과 전체 제일동포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셨으니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배려해주셨던 하례와 같은 은총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통하여 우리모두의 가슴가슴에 뜨겁게 흘러들어 건장함을 주는 소중한 격정에 힘입었습니다.

내외반동들의 방해책동이 계속되는 이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조국과 단결하는 시련과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제일조선인총련합회 제23차 전체대회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셨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분한 평가와 뜨거운 감사를 받아안은 우리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명복을 온몸으로 간직하면서 세상이 천만번 바뀐다 해도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마를 불같은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주제위업수행의 역사적전환기에 제일조선인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키는 리정표로 새겨주시고 전체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새로운 주제100년대 총련사업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총정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된 제23차 전체대회는 총련의 22기사업을 긍지높이 총화하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을 전면적으로 관철함으로써 총련을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적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는 열렬한 애국애족의 선각자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일 굳센 결심을 안고 앞으로 4년간의 사업방향과 주력과업들을 토의결정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 강성번영의 길을 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어김없이 관철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모시고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을 총련의 23기사업의 총적방향으로 내세우고 애국애족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의 모든 사업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광명적인 1999년 4월20일말씀을 항구적지침으로 하여두고 어김없이 관철해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유산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전통이

굳건하고 균중적지반이 강하며 전도가 양양한 위력한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으로써 제일조선인운동을 오직 주체의 한길로 전진시키겠습니다.

주체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제일조선인운동의 제일생명선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제일조선인운동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해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상의 힘으로 반동들의 온갖 도전을 박차고 일군들의 일심단결, 총련조직과 동포들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난국을 파고뚫고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갔습니다.

총련은 각급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며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기초조직들을 애국애족운동의 지역적지점으로 더 잘 꾸리고 새 전성기 애국애족운동과 동포교류운동, 동포회복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으로 광범한 동포들을 애국애족의 한길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애국애족운동을 새 시대 중심으로 확고히 전환하며 애국선열들이 마련해놓은 총정의 전통과 일심단결의 전통, 애국애족의 전통을 대를 이어 꽃피어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제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여는것이 총련과 동포사회가 나아가야 애국애족의 길, 강성번영의 길임을 깊이 새기고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의 미래를 위해 참다운 민족단체, 동포조직으로서의 총련의 성스러운 사명을 오늘에 요구에 맞게 더 잘 수행해나갔습니다.

총련은 민족교육사업을 애국애족운동의 중심에 놓고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 민족과목교육

을 더욱 강화하며 동포들의 지향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 강화하겠습니다.

총련은 제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민족적 차별이 류제없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새 세대들을 일본인화하려는 책동이 절정에 이른 오늘의 상황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민족성을 고수하고 각계 각층의 광범한 동포들을 묶어세우기 위해 민족문화운동을 활발히 벌려왔습니다.

조국발전과 평안한 일본땅에서 조국을 대신하는 어머니같은 총련은 제일동포들의 생활과 리익을 위해 헌신부투하고 일본반동들과의 투쟁을 통하여 제일동포들의 정당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고 확대해나갔습니다.

상공단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문을 높이 받들어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제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갔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어떤 정세가 닥쳐와도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특유의 기어하며 외세의 간섭을 팔장내고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우리는 총련을 둘러싼 정세가 긴장될수록 존엄 높은 주제조선의 권위를 높이 추켜들고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대외활동을 주동적으로 벌리며 총련활동의 합법적지위를 고수하겠습니다.

전체 총련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대로 늘 동포들속에 들어가 살며 일하면서

동포들의 애국애족의 열의를 발양시키며 동포들과 후대들의 행복하고 유족한 앞날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치는 동포들의 참된 복부자,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총련은 다음해에 맞이할 결성 60돐을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업적을 빛내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총련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는 중대한 정치적계기로 장식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들어서서 열린 제23차 전체대회에서 선출된 총련중앙기관 역원들은 전체 대의원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총질성에 기초한 대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게 다져나갔습니다.

우리는 내외원수들의 총련탄압책동이 아무리 포악해지고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겹잡는다 하여도 필승의 신념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문과 그를 구현한 본대회결정사항의 선봉대가 되어 분투함으로써 높은 사업실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할것을 맹세합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강성번영하는 백두산대국의 눈부신 미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최대의 념원입니다.

우리들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총정과 경도의 한마음을 담아 주제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운명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3차 전체대회

주제103(2014)년 5월 25일 일본 도쿄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3차 전체대회 진행

【도쿄 5월 25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주제혁명위업수행과 제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제일조선인총련합회 제23차 전체대회가 24일과 25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공화국기를 배경으로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태양상앞에는 꽃바구니들이 놓여 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축하문을 어김없이 관철하며 총련의 새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일조선인운동을 오직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자!》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주석대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형상한 그림과 《주제103(2014)》라는 글씨가 걸려있었다.

대회는 허충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 배익주, 박구호, 배진구부의 장들, 홍인홍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총련중앙상임위원들, 총련중앙교포들, 제일조선인력사업구소 상임교포과 소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중앙감사위원들, 총련의 각급 기관, 단체, 사업체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가

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일조선인총련합회 제23차 전체대회앞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을 남승우부의 장이 낭독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마음까지 합쳐 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과 전체 제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에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터치는 열광적인 박수소리가 장내를 뒤 흔들었다.

대회에서는 자적심사에 대한 보고가 있던 다음 대회의안들이 토의되었다.

1. 《총련 제23차 전체대회 보고에 대하여》

2. 《재정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3. 《총련중앙기관 역원선거에 대하여》

대회에서는 허충만의 장이 총련 제23차 전체대회 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사업보고에 이어 첫째 의안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총련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주제 100년사를 총화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제일조선인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간데 대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세우고 총련의 조직사상적토대를 굳건히 다지며 민족교육사업과 새 세대들과의 사업,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새 전성기이로의 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애국애족운동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제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반드시 열어나갈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문화위원회를 비롯한 조국의 각 기관들에서 보내온 축전들, 조국의 각계 인사들과 해외교포단체들 그리고 일본의 단체들이 보내온 축하인사가 소개되었다.

대회에서는 국제김일성상사회 리사 데비 수키르노, 주제사상국제당 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겐이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식 일본위원회 의장 히로미치 후미히로를 비롯한 일본의 각계 인사들과 공명당, 민주당, 사민당 등 일본의 정당인사들이

축하발언을 하였다.

제일조선청년학생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중앙역원청정위원회, 재정결산 및 예산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회에서는 총련 제23차 전체대회 보고를 대외결정으로 채택하였다.

둘째 의안인 재정결산 및 예산안 심의위원회 보고가 있던 다음 심의결과들이 채택되었다.

대회에서는 허충만주석을 의장으로, 남승우, 배익주, 배진구, 박구호, 강주련동지들을 부의장으로, 배진구 동지를 사무총장으로 선기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중앙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선출되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영원한 축복속에 사회주의조국과 더불어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총련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준 심의위원회 보고가 있던 다음 심의결과들이 채택되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총련중앙위원회 제23기 제1차회의에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회기간 예술공연 《태양의 품속에서 영원한 총련》과 사진전시회가 있었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셰미트요르단왕국 국왕과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압 만

하셰미트요르단왕국 국왕

### 아브들라흐 2 세 페 하

나는 하셰미트요르단왕국독립 68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평화와 발전,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아울러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3(2014)년 5월 25일 평 양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 간다.

-회양군 강동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성과 확대

전국적으로 14만여정보에 나무를 심고 400여km의 도로 기술개건, 1700여km의 강하천 정리

각급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떨쳐나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4만여 정보에 수억구기의 나무를 심고 400여km의 도로기술개건을 진행하였으며 1700여km의 강하천을 정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면대개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로 가슴을 끓이며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었다.

은 나라를 수리하고, 원리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

는 속에 나무심기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황해남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위대한 국토건설사업을 높이 받들고 봄철나무심기에 떨쳐나 1만여정보에 장성 이빨나무, 세일소나무, 잣나무 등 6천만구기의 나무를 심었다.

벽성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쓸모있는 나무를 많이 심어 교향산천을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전진시킬 일임안고 구슬땀을 바치였다.

이들은 적지를 바로 정하고 구덩이파기와 나무모보장을 앞세우면서 1000정보에 밤나무, 향성이깔나무, 세일소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를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심어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장안군, 은불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나무심기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여 짧은 기간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림동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이는에서 나서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환히 알고 떨쳐나선 선천군, 송화군, 안악군, 봉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매일 많은 면적의 산림토지에 나무를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심어 가까운 앞날에 그 덕을 볼수 있는 전망을 마련하였다.

평안북도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여러 지역의 산들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동림군, 사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단계별나무심기계획을 세우고 창성, 경주, 함흥, 선천,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특히 덕천시의 출신군, 선천시, 북창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도토리기술개건을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평안북도와 강원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도토리기술개건 사업에 힘있게 떨쳐나갔다. 태천군, 운산군, 정주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로의 평탄성보장을 기술개건의 중심고리로 정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이천군, 동천군, 금강군, 천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로복합장공사와 용벽공사를 다그치면서 여러 지구의 다리들을 보수하여 불친구자들의 안전한 운행과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자강도와 황해북도에서도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우시군, 초산군, 자성군, 강계시, 수안군, 서흥군, 원산군, 장풍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큰골목해결을 받았던 여러 지역의 다리들을 보수하면서 도로복합장공사를 하여 도로기술개건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하천정리사업이 힘있게 진행되었다.

평안남도의 선천군, 안주시, 개천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하천바닥파기를 앞세우면서 제방쌓기를 따라세워 콘크로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황해북도의 승호군, 수안군, 서흥군, 곡산군, 황화군, 선계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여러 지역의 강하천을 정교성과 문화성이 보장되게 정리하여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신승군, 북청군, 단천시를 비롯한 함경남도와 황해남도의 여러 시,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하천바닥을 파내고 제방을 견고하게 쌓으면서 이 일대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갔다.

각급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농업을 주력경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할데 대한 당의 전두적노선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의 시, 군협동농장에서 모내기과 강녕이밭두벌김매기를 힘있게 다그치면서 기세를 부쩍 올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리제발표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당과 국가가 제시한 일과 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 지도부에 도에서는 모든 시, 군협동농장에서 전향단위를 창조하고 그 단위를 정하고 그 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계적으로 일으키면서 모내기과 강녕이밭두벌김매기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이밖에도 통천군을 비롯한 도의 모든 시, 군들에서도 전향단위를 정하고 그 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계적으로 일으키면서 모내기과 강녕이밭두벌김매기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기관, 기업소, 공장, 일군들과 근로자들, 대학생들, 가두인민원들이 나라의 쌀독을 안고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모내기를 제일먼저 끝낸 지랑드 높이 계속 기세를 올리고있다.

도에서는 5월말까지 기본적인 모내기를 전부 끝내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윤천군이 모내기전투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군에서는 윤하협동농장을 전향단위로 내세우고 군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이 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면서 모내기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신주의시에서는 석하협동농장을 전향단위로 내세우고 역량을 집중하여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치는 동시에 강녕이밭두벌김매기에 힘을 넣도록 하고있다. 석하협동농장에서는 지난 23일까지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끝냈으며 특히 청년작업반은

# 재일 조선인 운동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관점을 가지고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3차 전체대회에서 한겨레의 장의 보고

대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불굴의 투쟁으로 지난 4년간의 22기사업을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70일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새로운 주제100년대를 대표하는 새시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시대가 활짝 펼쳐지고있는 사변적인 시기에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가지고있습니다.

본대회는 불세출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주제위업과 재일조선인운동의 탁월한 명도자로서 높이 모시고 가지는 첫 전체대회이며 바로 여기에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의 역사적 위치가 있습니다.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명도의 유일중심으로 더 높이 받들어 모시는 총정의 대회, 일심단결의 대회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총련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나갈 계승과 혁신의 대회입니다.

주제위업의 위대한 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12년 제23차 전체대회장으로 역사적인 축하문을 보내주시어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력적 지침을 밝혀주시었습니다.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에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신 것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언제나 귀중한 한시술로 여기시며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뜨거운 열육의 정, 열렬한 동포애의 승고한 정입니다.

또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민족의 영원한 대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신념과 의지로 파고대 이겨내면서 애국애족의 한결을 꽃피어 갈아가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최상의 믿음입니다.

본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



을 높이 받들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를 따라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사업방향과 앞으로 4년간에 수행할 주력사업의 토의 결정하게 됩니다.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는 위대한 김일성원수님의 명도따라 벌려온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열기 위한 투쟁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결정적계기로 될것입니다.

한층 높아졌으며 분회와 단체기초조직들을 활성화하는데서 새로운 사업성과와 결실을 이룩하였습니다.

기초조직들에서의 모범창조운동은 새 전성기 애국애족모범창조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10가지 목표달성을 위한 총련과 여성동맹의 분회사업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총화기간 비전인지부사업위원회들과 분회장들을 비롯한 기층단위 위원들은 총련제23차 동포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어 남다른 헌신적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총련 오사카본부의 일군들과 열성자들은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뚜렷한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70일운동을 총공격전으로 벌려내 대한 호소편지를 전조적으로 보내어 애국애족운동의 전진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3) 총화기간 우리는 그토록 엄숙한 정치경제적환경속에서도 민족교육사업과 새 세대와의 사업,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큰 힘을 들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총련은 민족교육의 고수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기편적, 전동포적으로 조직전개하여 많은 학교에서 학생수를 늘였으며 학교마다 《학교사랑-일기운동》을 전례없이 확대하였습니다.

22기기간에 6개의 우리 학교교과서를 새로 짓고 또 올해안에 공공한다는 것은 명실공히 새로운 전성기여로의 비약을 상징하는 큰결실이며 우리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총련의 각급 조직과 민족교육부, 단체와 사업체의 일군들과 그리고 범조직을 비롯하여 애국애족운동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할 새 세대 인재들을 수없이 육성하여 내보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기술사를 비롯한 교육시설들을 보수개축함으로써 보다 좋은 교육적환경을 꾸렸으며 올해 조선대학교 입학생을 크게 늘이는 자랑찬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총련 각급 조직과 동포들은 고등학교지자체에서도 우리 학교를 제외하고 교육보조금의 지불을 정지시킨 일본당국의 민족차별행동을 폭로하며 민족교육권을 옹호확대하기 위한 항의요청과 시명운동에 적극적 참여를 이룩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리론, 명도와 품도의 위대성에 대한 강연회와 선전교양사업은 새 세대를 비롯한 동포들의 가슴가슴을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애정으로 흥분시켰고 원수님을 한없이 그리워하게 하였습니다.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귀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베풀어주시신 은총과 총련에 대한 명도의 자욱을 더욱 가슴뜨겁게 새겨안았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국과 민족의 최고명도자로 높이 모신 한없는 영광과 긍지로 세차게 설며이셨습니다.

어버이장군님을 영원한 대양으로 우리들로서도 또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과 명도의 유일중심으로, 우리의 운명의 가장 귀중한 성과입니다.

새 세대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짜고쳤습니다.

지역의 비전일성자들을 발동하여 학생인사업과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벌였으며 청상회를 거친 새 세대들이 총련지부와 분회, 상공회와 교육회의 역원으로 나서 동포사회발전애에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조청과 류학동도 동포청년학생들과 사회주의 애국애족의 열정을 함께 하는 열렬한 애국애족의 선각자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일것입니다.

총련 23기사업의 총적방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체대회장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총련의 원수님을 단결과 명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해에 총련결성 60돐을 맞이합니다.

총련의 60년력사에는 주제적해의 교묘음동사상과 인자하듯 순결로 총련을 애국총정의 모범으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명도의 위대함이 어찌어찌하며 불멸의 업적이 찬연히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총련은 결성 60돐을 또 한번의 백두산 위인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명도 전성기를 열고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는 중대한 정치적 계기로 되게 할것입니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함께 감행한 속에서도 우리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였습니다.

조선대학교는 기술사를 비롯한 교육시설들을 보수개축함으로써 보다 좋은 교육적환경을 꾸렸으며 올해 조선대학교 입학생을 크게 늘이는 자랑찬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총련이 결성이래의 가장 엄숙한 정세속에서도 애국애족운동을 줄기차게 벌려 귀중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총련의 일심단결을 굳게 다져 단결의 힘으로 난관을 뚫고 운동을 전공적으로 벌려왔기때문입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내외반동들의 방해책동이 계속되는 이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과분하게 평가해주시고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원한 축복속에 사회주의조국과 더불어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 강성병영의 길로

걸로 힘차게 나아가는 총련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는 필승의 신념과 커다란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정치지신입과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겨 축하문에서 밝혀주신 강력적인 과업을 어김없이 관철함으로써 주제와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적으로, 사회주의 애국애족의 열정을 함께 하는 열렬한 애국애족의 선각자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일것입니다.

총련 23기사업의 총적방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체대회장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총련의 원수님을 단결과 명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해에 총련결성 60돐을 맞이합니다.

총련의 60년력사에는 주제적해의 교묘음동사상과 인자하듯 순결로 총련을 애국총정의 모범으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명도의 위대함이 어찌어찌하며 불멸의 업적이 찬연히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총련은 결성 60돐을 또 한번의 백두산 위인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명도 전성기를 열고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는 중대한 정치적 계기로 되게 할것입니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함께 감행한 속에서도 우리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였습니다.

조선대학교는 기술사를 비롯한 교육시설들을 보수개축함으로써 보다 좋은 교육적환경을 꾸렸으며 올해 조선대학교 입학생을 크게 늘이는 자랑찬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총련이 결성이래의 가장 엄숙한 정세속에서도 애국애족운동을 줄기차게 벌려 귀중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총련의 일심단결을 굳게 다져 단결의 힘으로 난관을 뚫고 운동을 전공적으로 벌려왔기때문입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내외반동들의 방해책동이 계속되는 이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과분하게 평가해주시고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원한 축복속에 사회주의조국과 더불어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 강성병영의

관한 현실과 총련의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하며 그들이 애국애족의 열정을 불태워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할것입니다.

총련은 광범한 동포들이 주체를 세우고 공화국을 창단하는 어머니조국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선전교양에 더 큰 힘을 넣을것입니다.

총련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전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총련의 교양망을 크게 확대할것입니다.

총련의 각급 기관들은 새 세대를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이 더 많이 조국을 방방하여 조국의 눈부신 발전 모습을 통하여 승리의 신심을 굳게 간직하고 애국애족운동에 떨쳐나서도록 할것입니다.

2) 총련 각급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것입니다.

각급 조직들은 일군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대외의 일심단결을 더 굳게 다지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과 그를 구현한 총련의 결정을 어김없이 관철하는 규율과 사업 질서를 세울것입니다.

총련은 조직력량을 전방성있게 확대, 편성하고 애국애족의 잠재력과 예비를 총발동함으로써 각급 기관들을 더욱 튼튼히 꾸릴것입니다.

총련본부의 지도력과 집행력을 높일것입니다.

지부를 비롯한 기초조직들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지역적거점으로 잘 꾸리고 생기기발달하게 육성하도록 할것입니다.

총련의 모든 조직들은 동포화합운동을 활성화하며 우리 학교에서 배운 동포들부터 배정없이 찾아내어 애국애족운동에 함께 나서도록 할것입니다.

각급 조직과 단체들은 동포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벌리고있는 사업들을 다 동포화합운동과 맞물려 이루어 주고 찾아낸 동포들을 민족정신 《그릇》과 사업들에 목적의식적으로 인입해나갈것입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은 새 세대와 상공인을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의 열성에 의거하여 재정의 대동적지반을 확대하며 전방계획에 따라 사업적으로 애국애족운동의 새 력사를 창조하며 단결을 굳게 다져 단결의 힘으로 난관을 뚫고 운동을 전공적으로 벌려왔기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족교육을 받은 새 세대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전통이 굳건하고 역사가 위대한 총련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가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할것입니다.

다져 우리 학교 졸업생들을 조정대렬에 빠짐없이 망라하고 일본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을 더 많이 찾아내며 참신한 대중운동으로 균중적지반을 크게 확대할것입니다.

청상회는 30대동포청년들을 폭넓게 망라한 힘있는 청년단체, 동포청년들의 경제, 생활실리를 도모하는 매력있는 경제단체로서의 체모를 더 잘 갖추어 우리 학교 지원사업과 기업가 육성사업, 경영방조사업들을 왕성히 벌릴것입니다.

류학동은 지방분부와 지부조직을 강화하고 동포학생들을 더 많이 묶어 세워 그들이 대학졸업후 조국의 과학기술발전과 총련조직과 동포사회를 위해 적극 나서도록 할것입니다.

여성동맹은 새 세대를 중심으로 전입, 반전일군대렬을 보강하고 기초조직을 활성화하며 민족교육연구고수학과 아이키우기지원활동, 민족문화운동을 활발히 벌릴것입니다.

셋째로, 총련은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애국애족운동을 줄기차게 벌릴것입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것이 총련과 동포사회가 나아가야 애국애족의 길이며 강성병영으로의 길입니다.

총련은 광범한 동포들의 사랑과 지지속에서 창단한 민족단체, 동포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오늘의 요구에 맞게 더 훌륭히 수행할것입니다.

1) 총련은 민족교육사업을 애국애족운동의 중심에 놓고 여기에 큰 힘을 들일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우리 말과 우리 력사, 우리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워주는 민족과목교육을 강화하며 교수와 교사의 활동을 통하여 민족성과 집단주의를 배양하는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더욱 실현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포들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우리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발전시킬것입니다.

천만방향한 민족차별책동에로 일 본당국이 우리 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지원을 정지한 여러 상황임수록 총련본부와 학교교과교육을 학교운영의 지원과,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사업체계를 세우며 우리 학교를 돕는 사업을 전동포적으로 벌려 민족교육사업을 꽃피어 나가도록 할것입니다.

또한 총련본부와 지부는 준정규교육망을 더 많이 꾸려 일본학교에 다니는 동포자녀들에게 민족교육을 주며 그들을 우리 학교에 받아들이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갈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밝혀 주신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나가는 데서 조선대학교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역할은 특별히 중요함이다.

2016년에 창립 60돐을 맞이하는 조선대학교는 공화국의 유일한 해외교포대학으로서의 자랑찬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주제위업과 재일조선인운동이 요구하는 세형의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배출하며 세계에 명성을 떨치는 권위있는 대학으로 자기 면모를 혁신해나갈것입니다.

2) 민족성과 상부상조로 보다 광범한 동포들을 애국애족의 길에 모셔세울것입니다.

(1) 총련은 민족화합운동의 양상을 가져오도록 할것입니다.

민족문화활동은 동포들을 광범으로 집결시키고 동포사회에서 민족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재일동포들은 그 어느 단계에 속하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피를 이어온 우리 민족정신이며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일본국적을 가지게 된 동포들도 한겨레입니다.

### 1. 총련 제22기 사업의 총화

총화기간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만고불후의 업적으로 빛나는 주제100년대를 총화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벌려온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전군을 개시한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총련에 있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22기사업기간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조국과 더불어 총련도 새 전성기를 열고 희망의 2012년에 함께 가자고 이끌어 주신 위대한 력사적기간이었습니다.

아울러 또 한편의 배두산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조국과 민족의 최고명도자로 높이 모시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재일조선인운동을 힘차게 벌려온 벅찬 격동의 기간이었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자애로운 한몸에 안아 이끌어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을 너무나 뜻밖에, 너무나 일찌기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영광을 천세만세 빛내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에 대양절과 광명성절경축행사장에 총련본부위원장과 지부위원장을 청상회와 조청, 교육일군들을 내세우셨으며 청년절과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전승 60돐에는 총련의 각급 대표위원과 조청, 여성동맹대표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안겨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신 최상최대의 영광을 지닌 대표단원들은 총련의 각급 조직과 동포들은 곳곳에서 조국방문보고인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리론, 명도와 품도의 위대성에 대한 강연회와 선전교양사업은 새 세대를 비롯한 동포들의 가슴가슴을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애정으로 흥분시켰고 원수님을 한없이 그리워하게 하였습니다.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귀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베풀어주시신 은총과 총련에 대한 명도의 자욱을 더욱 가슴뜨겁게 새겨안았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국과 민족의 최고명도자로 높이 모신 한없는 영광과 긍지로 세차게 설며이셨습니다.

어버이장군님을 영원한 대양으로 우리들로서도 또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과 명도의 유일중심으로, 우리의 운명의 가장 귀중한 성과입니다.

2) 총화기간 총련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장군님께 생전에 드리지 못한 기쁨의 보고를 기어이 드릴 불라는 총정의 일념으로 광명의 경쟁이며 애국애족의 성스러운 경쟁인 지부경쟁을 힘차게 벌렸습니다.

30개의 총련지부가 필기하고 125개 지부들이 호응하여 벌린 지부경쟁을 통하여 총련지부의 역할은

### 2.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를 따라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4년간의 주력사업에 대하여

대의원 여러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없는 양보도 없이 관철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총련조직을 위한 항의요청과 시명운동을 승리에 이끄시는 그토록 분발하신 속에서도 총련의 재일동포들을 자애로운 한몸에 안으시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총련사업을 현명하게 명도하고 계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유훈을 불멸의 기치로 추구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오직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 강성병영의 길로

가게 전진시켜나가기 합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 강성병영의 길, 이것이 우리가 확고히 틀어쥐고 갈기갈기 전진시켜나가기 할 새 주제100년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본대회장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에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내외반동들의 방해책동이 계속되는 이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과분하게 평가해주시고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원한 축복속에 사회주의조국과 더불어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 강성병영의

#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설계도따라 질풍같이 앞으로!

##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에서

### 웃음과 희열을 안겨주는 멧쟁이동물원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강도강행군을 정력적으로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별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

중앙동물원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도에 맞게 건설되고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공사가 가지는 중요성과 규모, 설계상징과 앞으로의 전망을 놓고 현장지휘부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동물원개건보수공사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공사가 가지는 중요성과 그 규모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실수있으면 한다.

부책임자 조광철: 중앙동물원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도

에 맞게 전면시공을 직접 맡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3월 11일 또다시 이곳을 찾오시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 거점답게 훌륭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다.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는 90여개 대상을 새로 건설 및 개건하며 주위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이곳을 명실공히 인민들에게 웃음과 희열을 안겨주는 즐거운 휴식장소로 전환시키기 위한 거창한 공사이다.

공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하게 된다. 현재 경진세관, 물개놀이장, 조류관, 파충관을 비롯한 8개 대상을 새로 건설하며 50개 대상을 개건하기 위한 1단계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기자: 새로 건설 및 개건되고

있는 건축물들의 설계상징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설계분과장 최일권: 우리는 모든 건축물들에 대한 설계를 선 편리성, 선 미학적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과 함께 동물들의 생태학적특성에 맞으면서도 그 고유한 양상과 현대미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건축물의 외형부터 대담성이 뚜렷이 살아나도록 하였다. 실제로 조류관은 새의 깃털모양을, 파충관은 거북기모양을 형성함으로써 참관자들이 결코 습관 보고서든 무슨 용도의 건축물인지 인차 알수 있게 하였다.

건축물의 내부설계도 동물들에게 충분한 생활조건을 보장하면서도 자연에 대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데 힘을 넣어

판관자들이 마치 해당 동물들의 서식지에 온듯 한감을 느낄수 있게 하였다. 2층으로 된 파충관의 내부를 보아도 판관구역에 열대초원 및 반사막구역, 열대수림 및 습지구역 등 여러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맞게 입구홀과 복도를 특색있게 장식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강의실에서는 참관자들이 파충류에 속하는 동물들에 대한 폭넓은 상식을 익힐수 있게 하였다.

시공분과장 김승남: 앞으로 공사가 완공되면 중앙동물원은 말그대로 인민이 즐겨찾고 인민의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된 문화정서생활거점으로 전전되게 된다.

동물원구내가 수림화, 원림화가 훌륭히 실현된 표준적인 공원지구로 전전되게 되며 주변의 풍지와 잘 어울리게 7개소에 이당한 휴식터들이 꾸려

지게 된다. 야외만이 아니라 실내판관구역에도 의자들이 갖추어주어 참관자들이 앉아서도 관람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2층으로 된 파충관의 내부를 보아도 판관구역에 열대초원 및 반사막구역, 열대수림 및 습지구역 등 여러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맞게 입구홀과 복도를 특색있게 장식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강의실에서는 참관자들이 파충류에 속하는 동물들에 대한 폭넓은 상식을 익힐수 있게 하였다.

시공분과장 김승남: 앞으로 공사가 완공되면 중앙동물원은 말그대로 인민이 즐겨찾고 인민의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된 문화정서생활거점으로 전전되게 된다.

동물원구내가 수림화, 원림화가 훌륭히 실현된 표준적인 공원지구로 전전되게 되며 주변의 풍지와 잘 어울리게 7개소에 이당한 휴식터들이 꾸려

### 공사초기에 포착한 중심고리

트러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5직장이 맡은 타조사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4500여㎡의 절토공사를 붙이 번쩍 나게 해체진척에 이어 지금은 마지막 절토공사단계에 들어섰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 단위들에서 기초굴착에 착수할 때 장태국동무를 비롯한 이곳 직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공사의 중심고리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 과제를 풀었다.

건설의 기초를 들어얹어야 할 구간에는 원태부리 물이 차 있었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 물리설 자리는 없다

모두가 물속에 뛰어들어 바레즈와 소뿔이 물에 퍼올렸다. 그렇게 다져진 기초 위에 이들은 물개번식수조건설물공조를 번듯하게 일떠세웠으며 잇달아 내외부미장도 끝내었다. 불과 열흘동안에 이루어진 성과였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 물리설 자리는 없다

모두가 물속에 뛰어들어 바레즈와 소뿔이 물에 퍼올렸다. 그렇게 다져진 기초 위에 이들은 물개번식수조건설물공조를 번듯하게 일떠세웠으며 잇달아 내외부미장도 끝내었다. 불과 열흘동안에 이루어진 성과였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하지만 이곳 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물리설 자리를 찾지 않았다.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자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재한된 양수설비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없었다.

### 물음표가 감탄표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원수이판건설을 맡은 트러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의 전투원들이 분관건설공사에서 시공과 보물 동시에 시공하려는 대담한 결심을 하였던것이다.

높이가 3m를 훨씬 넘는 60개의 기둥들을 먼저 세우고 그 사이에 보물 올려놓는것은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게다가 기둥사이의 간격은 7.5m로서 좁지 않은 거리였다.

복잡한 물음표가 생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전문가 벌여졌다. 이곳 사업소의 건설자들에게 종전에 이런 방법으로 시공을 해본 경험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고있는 사실로부터 맺어지는 필연적인 결심이었다. 디어어 기둥과 팔자가 동시에 시공되는 현실이 공사구간의 여기저기에서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변개같은 일출씨로 맑은 대상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조선인민내무군 김장남소속구분대에서- 본사기자 찍음

### 새 기준, 새 기록

명령이 내렸다. 지난 5월 초 조선인민내무군 심세웅소속구분대의 군인건설자들에게 수백㎡의 물리설공사를 해체질대 대한 과미치내 자체로 공사에 필요한 미끄럼틀을 제작하였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이런 의지를 안고 미끄럼틀을 위한 시공방법을 도입하는 길을 택하였다. 여기저기 필요한 자재들을 구해왔고 마침내 자체로 공사에 필요한 미끄럼틀을 제작하였다.

군인내, 군인기질을 남김없이 파시하며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시공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기본공조공사가 진입하였을 때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새로운 휘를 들 도입하는 과정에 그 기술적원리를 하나하나 체득해나갔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도 적극 창안 도입하였다.

뜻밖의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왔다. 지난 시기 많은 공사를 마쳐왔지만 원통형식의 벽체콘크리트 치기는 처음이었던것이었다.

성과는 비할바없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는 단번에 1.3배이상으로 경증 뛰어오르게 되었다.

기초굴착에만은 물론이요,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시공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기본공조공사가 진입하였을 때였다.

성과는 비할바없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는 단번에 1.3배이상으로 경증 뛰어오르게 되었다.

기초굴착에만은 물론이요,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시공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기본공조공사가 진입하였을 때였다.

성과는 비할바없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는 단번에 1.3배이상으로 경증 뛰어오르게 되었다.

기초굴착에만은 물론이요,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시공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기본공조공사가 진입하였을 때였다.

성과는 비할바없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는 단번에 1.3배이상으로 경증 뛰어오르게 되었다.

기초굴착에만은 물론이요,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시공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기본공조공사가 진입하였을 때였다.

성과는 비할바없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는 단번에 1.3배이상으로 경증 뛰어오르게 되었다.

기초굴착에만은 물론이요,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시공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기본공조공사가 진입하였을 때였다.

성과는 비할바없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는 단번에 1.3배이상으로 경증 뛰어오르게 되었다.

기초굴착에만은 물론이요,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시공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기본공조공사가 진입하였을 때였다.

성과는 비할바없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는 단번에 1.3배이상으로 경증 뛰어오르게 되었다.

기초굴착에만은 물론이요,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시공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기본공조공사가 진입하였을 때였다.

성과는 비할바없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는 단번에 1.3배이상으로 경증 뛰어오르게 되었다.

기초굴착에만은 물론이요,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시공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기본공조공사가 진입하였을 때였다.

성과는 비할바없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는 단번에 1.3배이상으로 경증 뛰어오르게 되었다.

기초굴착에만은 물론이요,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시공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기본공조공사가 진입하였을 때였다.

성과는 비할바없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는 단번에 1.3배이상으로 경증 뛰어오르게 되었다.

기초굴착에만은 물론이요,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시공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기본공조공사가 진입하였을 때였다.

성과는 비할바없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는 단번에 1.3배이상으로 경증 뛰어오르게 되었다.

기초굴착에만은 물론이요,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시공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기본공조공사가 진입하였을 때였다.

성과는 비할바없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는 단번에 1.3배이상으로 경증 뛰어오르게 되었다.

기초굴착에만은 물론이요,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시공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기본공조공사가 진입하였을 때였다.

성과는 비할바없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는 단번에 1.3배이상으로 경증 뛰어오르게 되었다.

기초굴착에만은 물론이요,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시공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기본공조공사가 진입하였을 때였다.

성과는 비할바없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는 단번에 1.3배이상으로 경증 뛰어오르게 되었다.

기초굴착에만은 물론이요,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시공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기본공조공사가 진입하였을 때였다.

성과는 비할바없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는 단번에 1.3배이상으로 경증 뛰어오르게 되었다.

### 병사의 꿈

조신인민내무군 김광세소속구분대의 지휘관, 구대원과 함께 나어린 병사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나이는 어려도 큰꿈을 지닌 병사이다. 훌륭히 개건된 중앙동물원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그에게 기쁨을 드릴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는 미더운 모습이다.

오직 하나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불철주야의 조강도강행군을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 그이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우리 병사들이 바쳐가는 위훈의 구슬땀은 이 땅위에 인민사랑의 알찬 열매가 되어 하나둘 주렁지고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일군들이 판관의 형편을 잘 알고있는 종합원가족들인데 식량을 집어까지 날라다주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람이 없었기라고 하였다.

### 후날 자서전에 몇몇이 새기리

부대가 경진세관건축공사에 착수한것은 지난 4월초였다. 부대가 각자의 많은 대상건설을 맡다나니 공사에 동원된 군인건설자수는 수십명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4월말까지 모든 골조공사를 완공했으며 한주 일만에 내외부미장작업도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회상기를 통한 혁명전통교양

조선원동원사업소 당세포에서 항일빨치산장기자들의 회상기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계기와 정함에 맞게 잘하고있다.

얼마전 강생이심기를 다그치던 때였다. 당세포에서 문준남동무는 항일빨치산장기자들의 회상기를 통한 선동활동에 대한 과업을 주고, 그들이 전투원로서 화신식계전선들을 힘있게 벌려주도록 당부하였다.

### 인민을 위해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참담하게 복무하자면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인포란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그렇게 일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포란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대중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려면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본 초급당위원회는 로동자들속에서 제기된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이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으로 살며 일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일군들이 판관의 형편을 잘 알고있는 종합원가족들인데 식량을 집어까지 날라다주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람이 없었기라고 하였다.

### 대중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자

대중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자. 대중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자. 대중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자. 대중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자. 대중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자.

### 이런 당일군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올라간 우리 아이들의 숨을 유심히 살피며 더 많이 웃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밝으면 선함으로 대한인민들의 동심을 찾아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던 아이들이 끝나라에 간 길은 밤, 문두드리는 소리에 나가 보니 구역일군들이 세벌의 곱같은 새 솜옷을 안고 들어서는게 아니겠습니까.

### 투철한 인민관을

은음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태우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당일군들이 늘어나고있다.

당일군의 자랑 원산의 확대 학에 자랑이다. 과학연구성과에 대한 자랑, 학과실력이 높아진 자랑, 학위학석소유자대렬이 부쩍 늘어남 자랑...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일군들이 판관의 형편을 잘 알고있는 종합원가족들인데 식량을 집어까지 날라다주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람이 없었기라고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일군들이 판관의 형편을 잘 알고있는 종합원가족들인데 식량을 집어까지 날라다주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람이 없었기라고 하였다.

### 독자의 편지

저는 함흥시 사포구역에 사는 세쌍둥이가 보고싶어 또 왔다가는 초급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식료품이며 확충품을 가져 안은 일군들과 함께 우리 집에 들어섰습니다. 삼일형편을 친이머니심정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던 책임일군은 한뼘이나 경증

### 농업전선에 필요한 배양식수입분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 힘을

농업전선에 필요한 배양식수입분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 힘을 쏟고있다. -강서분무기공장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 새 세기 문학예술혁명의 앞장에서 달리는 선구자예술집단

##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 활동을 두고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계기로 모란봉악단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고 진취적인 창조기풍을 따라 배운 후행으로 들끓고 있다. 모란봉악단!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우리 인민은 크나큰 긍지와 환희에 휩싸인다.

### 자기의 개성이 뚜렷한 멋쟁이악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란봉악단은 예술로써 우리 혁명과 건설을 고무추동하는 당의 문예집행팀의 척추대가 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모란봉악단이 조직된 때로부터 두해가 흘렀다. 길지 않은 이 나날에 모란봉악단은 새롭고 특색있는 공연무대를 편이 펼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갈망을 지어왔으며 새시대의 국보적인 예술단체로서의 면모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공연, 내용과 형식이 새로운 경지에 오른 공연, 보고 또 보고싶은 매력적인 공연이라고.

인민대중이 이렇듯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술의 세계에 끌려들어간 것은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높아지는 인민들의 문화적수준에 맞게 창작창조사업과 공연활동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탐구하고 구현해왔기 때문이다.

모란봉악단이 무대에 올린 노래들 가운데는 이미 우리 인민들속에 잘 알린 노래들도 적지 않다. 오래전

모란봉악단으로 하여 우리의 생활은 더욱 약동하고 우리 인민의 포부과 이상은 더 대대적이고 아름답아졌으며 우리의 진진속도는 더욱더 빨라졌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통하여 인민들은 희망찬 대일을 환희에 넘쳐 그리워하고 있으며 최후승리를 위하여 역세를 싸워나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다.

에 나온 노래들이지만 모란봉악단의 공연에서 울리는 그 노래들이 새로운 느낌과 격정으로 인민들을 그토록 흥분시킨 것은 창작자들이 예리한 시대적감각으로 노래들에 깊은 사상적내용과 인민들의 정서적감정을 일치시키고 거기에 풍부한 음악성과 현실적인 의의를 밀착시켰기 때문이다. 2013년 신년경축공연무대를 훌륭하게 장식한 경음악 《단숨에》의 기백있고 환희로운 선율을 우리 인민은 잊지 못하고 있다. 위대한 신년경축의 슬하에서 무적필승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는 인민군대의 영웅적기상이 나래치고 100% 우리의 힘과 기술, 지혜로 과학기술의 위성을 당당히 싸울 승리자들의 크나큰 의지와 자부심이 비껴있는 경음악은 인민군인들과 위장파화자들의 투쟁정신으로 삼바 투쟁대 강성국가건설도 조국통일위업도 단숨에 이룩할수 있다는 승리의 신심을 백배배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공연, 내용과 형식이 새로운 경지에 오른 공연, 보고 또 보고싶은 매력적인 공연이라고. 인민대중이 이렇듯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술의 세계에 끌려들어간 것은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높아지는 인민들의 문화적수준에 맞게 창작창조사업과 공연활동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탐구하고 구현해왔기 때문이다.

### 모란봉악단을 안이온 결사관철의 정신

황홀한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면 거기에서 비쳐진 모란봉악단 성원들의 피라는 노력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예술인대회에서 금지놀이로 토론회와 같이 모란봉악단의 정진세 예술인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새이 발휘하여 당의 위업을 충

진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아낌없는 절찬과 찬사를 받았다.

모란봉악단에서 창작형상한 새로운 노래들도 자기의 개성을 뚜렷이 살리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향과 감정정서를 훌륭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안겨주었다. 무대를 관람자들속으로 깊숙이 배치하여 배우들과 관람자들이 이전보다 더 친근하게 교감할수 있게 한것도, 다양한 음악의 형상세계와 맞물려들어가는 화려하면서도 변화무쌍한 조형효과로 예술공연의 색채를 한결 돋구어준것도, 공연의 주제와 성격에 맞게 특색있는 무대의상으로서 사람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킨것도 모란봉악단이 기성공연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혁신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자기의 뚜렷한 얼굴을 가진 이런 위대한 예술단체, 멋쟁이악단을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안겨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악단의 명칭에 아버지장군님께서 좋아하시던 모란봉악단을 이름을 달아주시고 3처럼 바르신 가운데서도 새로 태어난 악단의 혼연과정을 공명들을 수없이 지도하시면서 우리 나라 예술부분을 선도하는 기관차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기로다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 주신 정치위원의 비범한 음악세계는 참으로 위대한 현실을 낳았다.

### 과학기술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보다 큰 혁신을 창조

직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 인민들이 따라배우고 구현해야 할 시대의 본보기를 마련하였다. 당에서 준 과업을 열백배를 배서라도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연주가, 성악가들은 단숨에 예술인들이 아니라 불굴의 혁명가들이다.

이들은 예술창조활동을 시작하지 얼마 안되지만 우리 혁명에 필요하고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참신한 음악을 창조하려는 열렬한 지향, 당이 바라는 것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과제도 무조건 해내려는 각오로 집단주의적 경열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 예술창조사업을 벌였다.

불같이 흘러서 그 나날에 모란봉악단은 천만군민의 투쟁과 생활의 소중한 걸음무가 되었고 새 세기 조선의 예술을 대표하는 신도자가 되었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두해전 7월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 무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몸매와 목소리 선연된 연주기법으로 대관현악단이 내는 장중하고 풍부하면서 조 장쾌한 선율을 멋있게 울린 10여명의 연주가들, 정서적이고 흥취가 노래를 부른 젊은 가수들, 눈부시게 화려한 무대장치와 특색있는 조명 등은 사람들을 완전히 매혹시켰다.

시범공연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또 다시 완전히 새로운 음악세계-전승경축공연무대를 펼쳐서 자기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높은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보통 한 공연을 최상의 수준에서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혁명적이며 투쟁적인 창조활동으로 낮과 밤을 이어가며 총애의 판을 깨뜨리고 매번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새롭고 훌륭한 공연을 펼쳐보이곤 하였다. 아연의 멧가지 자료들이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

-2012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립 67돐 경축공연 《향토의 땅을 우리러 부르는 노래》가 진행된 후 20일인민 10월 29일 주체군사교육의 최고전망인 김일성군사

합대학창립 60돐 기념공연 진행. -올해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평양에서 공연 진행, 편이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8일간에 걸쳐 광양도순회공연 진행, 그로부터 며칠후인 4월 16일 경열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 제 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진행.

이 놀라운 공연성과는 핵폭탄보다 더 위대한 예술의 힘으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기어이 결사관철해야 한다는 모란봉악단 성원들의 드높은 정신력에 근본원천을 두고 있다. 이렇듯 모란봉악단은 태어난 첫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군시대의 슬결이 넘치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작공연활동을 벌여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에 산악같이 불러일으켰으며 우리 당사상문화전선의 제일기수, 제일나팔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한 공연활동

모란봉악단은 결코 화려한 극장무대에서만 공연을 펼치지 않았다. 때로는 원수적결의의 함성드높은 화선공연무대들에서, 때로는 《마식령속도》 창조의 불길이 타번지는 공작의 무대에서, 때로는 우리 혁명의 발원지, 항일전의 나날 진취적인 보우였던 백두산자기를 존중무민하며 항일유격대연예활동을 방불케 하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예술활동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과 가슴을 최후승리에 대한 환희와 격정으로 들끓게 하였다. 이들 한사람, 한사람은 가수이고 연주가이기 전에 사상의 모로를 열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치는 훌륭한 사수들이었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최고사령부의 제일나팔수들이었다.

모란봉악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악창조지를 앞장에서 만들어가는 선군문화전선의 제일군위병, 최고사령관들까지 그어주시는 붉은 화살표를 따라 힘있게 전진하며 나라의 전군가를 높이 울리는 제일나팔수가 되어야 한다는 당의 크나큰 믿음에 기어이 보답할 불타는 열정을 안고 마나면 중군의 길을 불꽃이 되었고 항일의 전구마디에

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기어이 결사관철해야 한다는 모란봉악단 성원들의 드높은 정신력에 근본원천을 두고 있다. 이렇듯 모란봉악단은 태어난 첫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군시대의 슬결이 넘치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작공연활동을 벌여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에 산악같이 불러일으켰으며 우리 당사상문화전선의 제일기수, 제일나팔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성을 힘있게 터뜨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선동부시찰의 길에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보내주시신 8.25경축 화선공연에서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은 선군로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사회주의조선을 불태는 강국으로 빛내여주시는 백두산자리의 하늘같은 업적이 있어 선군혁명위업체승을 위한 전선과 후방이 마련되었음을 음악적형상으로 감명깊이 구가하였다.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모란봉악단의 화선공연들은 부대장병들을 수렁의 결사투쟁의 총포탄, 조국통일대전의 결사대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모란봉악단의 화선공연들은 온 나라로 힘있게 번져갔다. 수백리나 되는 광양도의 여러곳을 순회하며 하루에 두차례씩 연일 공연을 진행한다는 것은 갈수록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곁사람은 유쾌적인 피로가 간단치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미더운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광양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앞둔 자기들의 공연을 몸소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한사도 잊지 않고 항일의 전구마디에

《아리랑》의 노래소리를 힘차게 울려가던 녀투사들처럼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마지막날까지 훌륭한 공연무대를 펼쳐 광양도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배두의 혁명정신과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북돋아주었다.

모란봉악단의 순회공연은 광양도인민들의 생각과 눈빛, 결음에까지도 달라지게 하였으며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려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기 위하여 새 악같이 일떠서게 하였다. 이렇듯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쟁책관철로 총결기시키고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준 모란봉악단의 화선공연은 영도자와 인민, 최고사령관과 병사들 사이의 혈연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고 온 나라를 새로운 조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으로 들끓게 한 강위력한 노래폭탄이었다.

### 우리 당은 선군영도를 실현하는데서 우리의 문학예술이 진군의 나팔수가 될것을 바라고있다.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인들은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심장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들처럼 싸워 세시대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을 지켜낼 줄은 결심한 위인들이다.

절세의 앞면에서 주체의 문학예술부문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이 있고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모란봉악단과 같은 시대의 본보기가 있으며 당의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혁명적예술인들의 대오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기에 위대한 길은은시대를 빛내는 음악예술의 보물고는 더욱더 풍부해질 것이다.

### 조향미



### 강제정신의 창조자들담기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흐르는 물과 조를 기적과 위력으로 수놓아가는 세포 지구 축산기건설 자강도려단 특색(특원들이 작업의 일환에 대해사회주의경쟁도표판 앞에 또다시 모인다. **《동무들, 저것 좀 보시오. 현재 우리 대대의 작업실적이 제일 높구나. 경쟁도표판이 좀더하게 커를 움켜쥐고 추는 붉은 줄을 가리키면서 기해하는 만포시대 대대장 김기철동무의 얼굴에**

남다른 긍지가 넘쳐난다. 그런가하면 매일 계획을 150%이상 해체해 맡겨진 대상건설 전투에서 반드시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고 버는 장강군과 동진군, 강강군대장들의 경쟁심 또한 만만치 않다. **강계시와 회천시, 랑림군과 동풍군, 송원군대대 돌격대원들의 승백으로 높아가는 붉은 줄마다에 그대로 어려있다. 나이와 성격, 떠나온 일터는 서로 달라도 우리 식 대규모축**

산기지건설을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려는 하나의 지향안고 들끓는 전투장마다에 불타는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이들이다. **강제정신의 창조자들담기**는 단적인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켜가며 남다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려단안의 전제 일꾼들과 돌격대원들, 이들과는 다른 세로동맹계척자들의 미더운 불굴의 투쟁모습을 어머니조국은 기대와 확신에 찬 시선으로 지켜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광현

###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고상한 정신세계

#### 뜨거운 혈육의 정을 안고

#### 송원군을 50인민반 리자화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당과 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좋은 인민이다.》**

송원군 읍에서 살고있는 영예로운 김철명동무가 친어머니처럼 여는 한 녀성이 있다. 그가 바로 송원군을 50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리자화동무이다. 리자화동무가 영예로운 김철명동무를 알게 된 것은 몇해전 1월이었다. 그때부터 리자화동무는 함께 일하는 단위의 총원들과 영예로운 김철명동무를 자주 찾아가 하루빨리 완쾌되도록 친 열의 정을 기울이고 하였다.

남반 때마다 몸상태는 어떠한가,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가고 다정히 물어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대해주는 리자화동무의 진정에 넘친 모습을 대하며 김철명동무는 눈물을 적시곤 하였다. 리자화동무는 한계 단위의 일꾼이고 자식을 가진 녀성이지만 바쁜 속에서도 언제 한번 영예로운 군을 잊은적이 없었다. 사업상 운운로 자주 출장길을 오가면서도 그는 영예로운 김철명동무에게 필요한 약재와 보약을 잊지 않고 보내주곤 하였다. 언제인가 영예로운 김철명동무가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리자화동무는 김철명동무를 집을 떠날 때부터 불편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 충정의 길, 보답의 길에서

#### 매관군을 96인민반

몇해전 어느 오영호동무의 가정은 명절처럼 흥성이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인 영예를 지니고 계를 두고 있는 생활 사람의 선물까지 받아안은 오영호동무를 보니 안현인 강영호동무는 물론 어린 자식들까지도 너무 기뻐 아쩔줄 몰라하였다. **그날밤 이물부부는 자정이 넘도록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남편이 어느 한 도로건설장으로 탄원하던 일이며 수백원의 공구들과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남편이 있는 돌격대에 보내주던 일들이 추억깊이 돌이켜졌다. 그럴수록 받아들인 사랑과 믿음에 더 많은 열을 해야겠다는 결기가 그들의 가슴속에 굳게 자리잡았다.**

그들은 보답의 마음안고 원군 사업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더 많이 찾아하였다. 그후 원호동무는 자강도 대양군건설공민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을 찾았던 강영호동무는 낫과 밭이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한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공을 필요수 많은 공구들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더 많이 찾아하였다. 모시는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본사기자

### 효능 높은 허버빙저항성유도제 발명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평양시서구역연료사업소에서 평양시서구역연료회와 구역당위원회, 구역인민위원회와 적극적인 지도방도와 김책공업종합대학과의 긴밀한 창조적협조 속에 올해에 들어와 몇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실리거 큰 소형착화탄생산공정을 훌륭히 꾸려놓았다. **그러하여 구역주민들의 생활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전담을 얻어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원료와 연료, 동력자원을 새로 개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절약하는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함이다.》** 서성구역연료사업소에서 꾸려진 소형착화탄생산공정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들이 수도시민들의 생활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여러해에 걸친 고심어린 연구개발과정의 결과로써 과학기술성과들이 집약되어있는 공정이다. 이 공정은 가스

##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더 많이

### 김책공업종합대학 광업공학부에서

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갔다. 낫과 밭이 따르지 않고 광산의 추풍 및 경도시분석자료, 축광자료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기초하여 새로운 지질측량기기들을 구축하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과학과 생산을 결합시키는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노력하는 과학기술인들을 더 많이 육성하고 생산현장에 적극 파견하는 사업을 옹호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해왔다.

당에서 바라는 문제,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가 있다면 어느때든지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절박한 곳에 자신들을 세우고 모든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는 이들이다.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절실히 필요한 알찬 종자를 골라잡는 비산한 안목, 자기들의 실력을 무한대로 활용하면서 하나를 창조해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해나가며 일단 시

김책공업종합대학 광업공학부의 교원, 연구자들이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나가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경제를 현대화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는데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은 특별한 중요한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

당에서 바라는 문제,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가 있다면 어느때든지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절박한 곳에 자신들을 세우고 모든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는 이들이다.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절실히 필요한 알찬 종자를 골라잡는 비산한 안목, 자기들의 실력을 무한대로 활용하면서 하나를 창조해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해나가며 일단 시

짧은 기간에 하나하나 완성해 놓는것을 보고 일꾼들이 칭찬할 때에도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땅속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을 더 많이 채굴하여 조국의 부강민생을 이바지할수 있게 하려는것이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불같은 열망이었다. **수자생산설계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 애로와 난관이 겹겹이 얹을 가로막았다. 채굴공간에는 고결광석들이 쌓여있고 경도들도 일부 분량되어 도면과 현장조건들이 맞지 않았던것이다. 이때에도 그는 주저없이 심부마장에 들어가 경도와 채굴장 측량도 진행하고 채굴장의 방출구들을 확인하면서 현장 조건에 맞는 생산공정들을 확립해냈다. 한철동무의 높은 실력과 불타는 열정에 의하여 해산탄광산에서 전담생산공정의 컴퓨터화가 실현됨으로써 탐광결정작업량**

을 줄이고 채굴량량을 정확히 평가할수 있게 되었으며 광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되었다. 학부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는것과 함께 여러 단위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 **강과장 박사, 부교수 진두하동무와 김강태, 김경성동무들은 이는 한어 해마다 나가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로 개발한 다공성상성가스흡수체를 도입하여 소성과정에 나오는 폐기물 제거하였으며 단천마그네사공장에 무리시회리들을 설치하여 소성과정에 나오는 먼지를 없애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오늘도 김책공업종합대학 광업공학부 전체 교원, 연구자들은 대학을 나려의 위대한 과학기술인재양성기, 과학기술핵심공장을 키워내는 원동력으로 꾸려온 당의 믿음과 기대를 한사도 잊지 않고 과학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 소형착화탄생산공정을 새로 꾸려놓았다

#### 서성구역 연료사업소에서

나 석유와 같은 천연연료를 대신할수 있게 우리 나라에 흔한 자연원료로 만든 최제를 리용하여 석탄을 최제한 절감하면서 동시에 불결이 빨리 올라오면서도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유해가스방출량이 적고 냄새, 연기 가 적게 나는 소형착화탄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공정에서 생산되는 소형착화탄은 착화율과 연소속도가 뛰어난 두께의 홍주조로 되어있다. **작은 착화탄에 비하여 크기가 작으며 동시에 착화되고 연소시간도 길뿐 아니라 불결의 최대온도도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있다. **원료준비과정과 혼합과정, 형성 및 포장공정에 대한 실시감시 및 조종체계가 세워졌으며******

원료준비과정과 혼합과정, 형성 및 포장공정에 대한 실시감시 및 조종체계가 세워졌으며

원료준비과정과 혼합과정, 형성 및 포장공정에 대한 실시감시 및 조종체계가 세워졌으며

원료준비과정과 혼합과정, 형성 및 포장공정에 대한 실시감시 및 조종체계가 세워졌으며

원료준비과정과 혼합과정, 형성 및 포장공정에 대한 실시감시 및 조종체계가 세워졌으며

원료준비과정과 혼합과정, 형성 및 포장공정에 대한 실시감시 및 조종체계가 세워졌으며

원료준비과정과 혼합과정, 형성 및 포장공정에 대한 실시감시 및 조종체계가 세워졌으며

원료준비과정과 혼합과정, 형성 및 포장공정에 대한 실시감시 및 조종체계가 세워졌으며

원료준비과정과 혼합과정, 형성 및 포장공정에 대한 실시감시 및 조종체계가 세워졌으며

원료준비과정과 혼합과정, 형성 및 포장공정에 대한 실시감시 및 조종체계가 세워졌으며

원료준비과정과 혼합과정, 형성 및 포장공정에 대한 실시감시 및 조종체계가 세워졌으며

원료준비과정과 혼합과정, 형성 및 포장공정에 대한 실시감시 및 조종체계가 세워졌으며

원료준비과정과 혼합과정, 형성 및 포장공정에 대한 실시감시 및 조종체계가 세워졌으며

